



2014년 출판인 신년교례회 “정부·국회·업계 한뜻으로 출판 진흥 기원”

2014년 출판인 신년교례회가 지난 1월 7일 대한출판문화협회 대강당에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재운 민주당 국회의원, 이재호 한국출판진흥원 원장, 김종수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 부길만 한국출판학회 회장 등의 귀빈과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신년교례회는 윤희두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의 신년사,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축사, 김재운 민주당 국회의원의 축사, 업계 원로와의 새해 인사, 축하 떡 절단식, 건배 제의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윤희두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많은 출판인들의 가르침과 성원에 힘입어 지난 한 해 우수한 출판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렸으며, 오는 4월에는 런던도서전의 주빈국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로써 유럽의 양대 북페어인 프랑크푸르트도서전과 런던도서전의 주빈국 참가라는 또 하나의 기록을 세우게 됐으며, 출협은 런던도서전의 성공적 참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출판의 위상 강화는 세계전시회에 꾸준히 참가한 출판인의 노력과 관계부처의 지원으로 가능했다”라면서 “올해는 도서정가제를 비롯한 출판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약속들이 잘 지켜져 출판환경 개선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유진룡 문화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문화융성의

핵심가치를 책에 두고 있다. 지난해보다 출판업계를 위한 지원금을 대폭 늘렸으며, 전자출판 진흥이나 중소출판사 지원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사업을 계획할 때 여야 국회의원 할 것 없이 모두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지원을 약속했다. 그만큼 출판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도 강하다. 이제 남은 것은 출판계가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열어 가는가에 있다”라며 격려했다.

김재운 민주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해선 출판산업의 역할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출판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회와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으니 출판문화의 르네상스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축하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양철우 교학사 회장을 비롯한 만 80세 이상의 업계 원로들이 단상에서 따로 새해인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의미를 더했다. 이어 업계 원로와 귀빈을 비롯한 유관 단체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축하 떡 절단식을 진행함으로써 2014년 출판계의 행운을 기원했다.☺